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4일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자문단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협뉴스

국민 '소통의 썩' 이정현

임명(6월4일) 한 달을 갓 넘긴 이정현 홍보수석의 활약이 발군이다. 우선 이정현 당시 정무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들끓었던 '소통 부재'라는 비판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 덕분인지 국민의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이 홍보수석의 등장엔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정보 갈등을 푸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공식 브리핑 외 매일 2~3차례의 비공식 브리핑으로 기자들에게 국정 최고위층의 결정 과정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오해와 왜곡을 미리 방지했다.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이 왕성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는 사이 집권 초 40~50%대에 불과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직무수행 평가 지지도는 60%대로 올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홍보수석 임명직전인 5월말 55.4%이던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임명 직후에 61.5%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중순 63.3%로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 비록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

靑 홍보수석 임명 한 달 ... 박근혜정부 발군의 활약
열정·성실 대명사 ... 박대통령 지지율 60%대 올라
지역민들 "쓴소리 마다하지 않는 측근 되어달라"

등으로 6월말 60.2%, 7월초 59.6%까지 떨어졌으나 외부변수여서 이 수석의 역할을 따지기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5월말 52%이던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 반응이 이 수석으로의 교체 이후 60%로 올랐다. 역시 대화록 공개 파문 등으로 54%까지 떨어졌으나 이달 첫주 조사 때 63%까지 다시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했겠지만 이 수석의 공헌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수석을 평가하는 단어로는 주로 '열정'과 '성실'이 쓰인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박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설파하고 옹호하는 측근은 없다는 게 정치부 기자들의 일반적 지적이다. 때문에 가끔은 생각을 달리하는 기자 또는 정치인과 언쟁을 할 정도다. 그때는 이 수석의 목소리

가 한없이 올라간다. 박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 대한 답답함과 억울함의 발로(?)로 보인다. 이 수석의 성실성은 청와대 내에서도 유명하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간신문 등에 난 주요 기사를 점검하고, 6시계 서울 봉천동의 집을 떠난다. 6시30분께 청와대에 도착해 구내 목욕탕이나 이발소에 들러 이후 시작되는 각종 회의에 모두 참석한다. 때때로 기자실을 찾아 브리핑하는 것은 그의 중요한 일과다. 아침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하며 저녁 약속이 있어 오후 6시30분께 밖에 나갔다가도, 밤 9~10시계 다시 청와대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읽는 날이 대부분이다. 퇴근 시각은 빨라야 밤 11시다. 이 같은 성실과 열정은 박 대통령에 대한 "그만의 책"을 만들게 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했던 중요 발언과 연설을 A4용지에 정리, 제본한 '박근혜 어록(語錄)' 5권

이 그것이다. 그 노트에는 남북관계·경제민주화·부동산대책·건강보험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그동안 박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과 박 대통령이 당 대표, 대선후보 시절 접촉했던 인사에 대한 촌평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어록을 종일종일 해질 만큼 자주 읽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측근을 머뭇할 대통령이 있을까. 당연히 이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는다. 박 대통령은 장소와 상황을 막론하고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지시할 때 그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그는 겸손하기로 유명하다. 자연스럽게 들었던 '왕수석'이란 말을 가장 싫어하며 스스로 '쫄(쫄)수석'이라 칭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 때도 찾아온 예산담당 말단 공무원까지 반갑게 만났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 곡성 출신인 이 수석을 바라보는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는 몇 가지 바람이 있다. 그것은 주변의 적지않은 견제를 뚫고 박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최측근이 되라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구 가고싶지만...”

7~8월 정치 하한기,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장외투쟁 고민

7~8월 정치 하한기를 맞은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른 해에는 의정보고회 등 지역구 활동에 열중해야 할 상황이지만 올해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으로 대외 투쟁 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마음대로 지역구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때문이다. 전남지역 한 의원은 8일 “발처 지역구 활동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지만 당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당 방침을 어기고 지역구 활동만 할 수 없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이 다른 의원은 “지난 해 대선 때부터 지역구 활동을 소홀히 해서 이번 여름에 전 지역구

를 훑을 계획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 중요한 지역만 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날 김한길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매주 민생현장을 방문해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내용 등을 담은 7~8월 활동계획을 발표, 의원들의 활동폭을 제한했다.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실천’이라는 양대 목표 하에 4개 부문으로 나뉘어 마련된 이 계획에 따르면 당은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추진 권역별 대의원 회의를 병행키로 했다. 또 ‘민생실천’ 방안으로는 당 정책위원회 중심의 민생현장 투어, 당 ‘을지로위원회’의 전국 투어를 계획했다. 특히 민생현장 투어는 현장 최고위원회의, 국회 상임위원·의원모임별 ‘경청투어’로 구성하

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거의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 마음이 불편하다.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분투하는 당 지도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눈앞의 선거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중앙당 관계자는 “7~8월은 의원들이 보통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정국교섭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중앙당 행사 참여로 의원들도 투트랙 전략을 펴게 됐다”며 “중앙당 행사도 결국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도움을 주지는 것이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전남도 SOC 정부예산안에 반영

전남, 2014년 국고 5조6991억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남해안철도(목포~순천) 등 전남도의 SOC 예산이 2014년 정부 각 부처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들 SOC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선정됐고, 최근 발표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도 포함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처 예산안에 따르면 전남도의 2014년 국고는 5조6991억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호남고속철도 1조5369억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144억원 ▲남해안철도(목포~순천) 고속화 200억원 등 SOC 사업에 2조4433억원이 반영됐다. 과거 2억원의 운영비만 책정했던 남해안철도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호남고속철도에 많은 예산이 반영돼 이 지역 대형 SOC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450억원) 등 농림식품 분야 1조956억원, 목포신항 건설(740억원) 등 해양수산분야 3091억원, 광양만권 미래형소

재산업 육성(100억원) 등 경제산업 분야엔 949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는 오는 12일 국회에 예산위원장을 만나 추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한림제약이 전하는 건강뉴스 '국민' 편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씻 코

코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배편호기/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신속히 개선
- 무자극/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 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여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온가족이 상비해 놓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임형 허기 알약의약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비염·알레르기·비염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신속히 개선
용법·용량/성인: 용량에 따라 필요 시 열매 비강세척제 2회 하루 1회 사용
※연령, 증상 등에 따라 약량에 조정하십시오

알레르기 비염, 콧속 염증으로 답답한 코

뜨 코

코속에 뿌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배편호기/코가려움·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 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여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환부에만 작용하는 속임형 허기 알약의약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코가려움, 비염,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신속히 개선
용법·용량/성인: 용량에 따라 필요 시 열매 비강세척제 2~3회 하루 1회 사용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담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